

‘로잔너머’ 연속심포지엄 1차

로잔운동과 한국교회

- * 2023년 6월 27일(화) 19시~21시 30분
- * 서울영동교회 교육관 5층
_ 서울 강남구 논현로132길 18, 학동역 10번 출구

발제 | 이문식

(광교산울교회 목사, 기윤실 이사)



- * 여는 말씀 | 손봉호 (기윤실 자문위원장, 서울대 명예교수)
- * 논찬 | 강성호 (안양일심교회 부목사, 고신대 외래교수)
김현아 (기윤실 사무국장)
- * 사회 | 조성돈 (기윤실 공동대표, 실천신대 교수)

문의 _ 02)794-6200, cemk@hanmail.net

주최 로잔너머 주관  (사) 기독교윤리실천운동

“

2024년 9월, 한국에서 로잔 50주년 기념 제4차 로잔대회가 개최됩니다. 지난 30여년간 로잔 정신에 기반하여 사회선교운동에 헌신해 온 단체들이 모여 로잔 정신과 한국 기독교를 생각해 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로잔운동이 한국교회에 준 영향과 맺어왔던 관계를 다각도에서 살피면서, 2024 로잔대회가 담아내야 할 ‘총체적 복음’의 이슈와 이 대회를 기점으로 한국교회와 사회선교운동이 로잔 정신의 영적, 신학적 자양분을 바탕으로 실천해야 할 과제들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로잔 언약과 한국교회

- 언약과 선언과 서약으로

이문식 목사

들어가는 말

로잔 언약은 세계복음주의협의회(WEA)의 선교 신학을 가장 잘 나타낸 문서이다. 로잔 언약을 통하여 복음주의 선교 신학은 총체적 선교 신학으로 열매를 맺었다. 특히 복음 전도 및 선교에 있어서 영혼 구원과 사회 구원을 이원화하였고, 그중 개인 구원의 문제에만 함몰되어왔던 기존의 이원론적 선교 신학을 벗어나, 전인 구원이라는 선교적 총체성을 추구했다. 이것이 로잔 I 대회에서 로잔III 대회까지 이루어진 복음주의 선교 신학의 주된 흐름임을 이해해야 한다.

I. 로잔 I 대회 이전의 흐름(1966-1974.6)

로잔 대회 이전에 세계복음주의 교회의 지도자들은 세 번의 대회를 통하여 '복음 전도와 사회적 책임'이라는 문제를 다루었다. 이 대회들을 통해 채택한 성명서를 살펴보면, 대체로 이 문제에 대해 고뇌한 흔적은 보였지만, 뚜렷한 신학적 입장을 드러내지는 못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 휘튼 선언(The Wheaton Declaration, 1966년 4월)

우선 1966년 4월 미국의 일리노이주 휘튼에서 '복음주의 해외선교회'와 '교파 해외선교회' 소속의 102개의 선교부의 대표가 주축이 되어 채택한 '휘튼 선언'을 보면 그 초안에서는 사회적 책임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었음을 발견할 수 있다. 한마디로 아주 보수적인 성격의 성명 초안이었다.

그러나 이 초안을 미리 입수한 비(非)서구 교회의 대표들은 이에 반발하여 여러 분과위에서 격한 토론과 연설을 하였으며 총회에서는 결국 다음과 같은 몇몇 조항을 덧붙이는 데 성공했다. 그 조항은 다음과 같다.

“우리는 성경의 가르침과는 달리 세상으로부터 분리하는 잘못을 범했다. 그래서 너무나도 자주 세상 문제들과 정직하게 부딪혀 그 문제들을 해결하지 못했다.”

“성경적 원리들을 인종차별, 전쟁, 인구폭발, 가난, 가정 붕괴, 사회혁명 및 공산주의와 같은 문제들에 적용하지 못했음을 고백한다.”

“모든 복음주의자가 전 세계 인종의 평등, 자유 모든 형태의 사회정의를 위하여서 공개적으로 그리고 단호하게 싸울 것을 촉구한다.”

이 휘튼 선언은 Ruben Lores가 이 대회가 끝난 직후에 말한 것처럼 ‘과거의 그릇된 두려움을 쫓아버리고 또 많은 복음주의자가 사회활동을 자유주의 신학과 동등시하게 만드는 잘못된 판정을 바로 잡는 일에 큰 도움이 되는 대회였다’는 평을 받았다. 사실 이 대회는 ‘복음 전도와 사회적 책임’에 대하여 복음주의자들이 신학화 작업을 안심하고 수행할 수 있게 해준 대회였다.

2) 베를린 세계 복음 전도 대회(The World Congress of Evangelism, 1966년 10월)

그러나, 이런 휘튼 선언에 대한 보수적 반동은 곧 다시 일어났다. *Christianity Today*지 창간 10주년을 기념하여, Billy Graham을 중심으로 한 선교대회가 1966년 10월 Berlin에서 열렸다. 이 세계 전도 대회는 전 세계 100여 국의 대표 1,111명이 참석하였다. 이 대회에서 Billy Graham은 ‘교회가 복음을 선포하고 사람들을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오게 하는 주요 과제로 되 돌아온다면, 교회는 교회가 할 수 있는 어떤 다른 것을 통해 성취할 수 있는 것보다 인간의 사회적, 도덕적, 심리적 필요에 훨씬 더 큰 영향을 끼치게 될 것’이라는 종래의 보수적 확신을 재차 단언하였다.

이 대회는 복음주의 진영 내의 같은 우파인 Arthur Johnston조차도 ‘서구적인 조직과 표현이 지배적이었던 대회였다’고 인정했으며, ‘교회의 유일한 선교적 사명이 복음 선포임을 확고하게 주장하긴 했지만, 사회활동을 위한 신학적 기초는 세우지 못한’ 대회였다.

3) 시카고 선언(Chicago Declaration of Evangelical Social Concern, 1973년 11월)

1966년에 4월과 10월에 모인 이 두 대회의 대립적 성격은 그 후 약 7년간 세계의 복음주의 진영에서 끊임없는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그러다가 1973년 11월의 추수 감사절 Workshop에

서 나온 ‘복음주의적 사회적 관심에 대한 시카고 선언(Chicago Declaration of Evangelical Social Concern)’을 통해 획기적인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었다. 이 선언은 이후에 로잔 언약을 향한 신학적 토대를 갖추게 된다.

이 선언서는 ‘본질상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의 삶을 전적으로 주장하신다’라는 확인과 함께 ‘사회 속에서 하나님의 정의를 나타내지 못한 잘못’에 대한 고백을 표명하며, 그 부분에 대해 ‘회개하고 우리나라의 사회적, 정치적 불의에 맞서는 제자도 정신을 발휘해 줄 것’을 미국 복음주의자들에게 요청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였다. 이 모임이 끝난 직후 *Christianity Today*와의 인터뷰에서 빌리 그래함은 자신의 변화된 입장을 다음과 같이 밝혔다. ‘우리는 사회적 책임이 있다. 따라서 나는 최근에 발표된 복음주의적 관심에 대한 시카고 선언의 대부분에 동의한다. 나는 우리가 사회구조의 변화를 잘 알아서 우리가 맡은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지금까지 다루었던 세 대회는 결국 ‘로잔 언약’으로 향하는 과정에서 서로 다른 입장을 가졌던 복음주의자들이 어떻게 일치를 향해 갔는지를 잘 보여준다. 이러한 일들을 배경으로 전 세계의 복음주의 교회는 비로소 로잔 언약을 통해 ‘복음 전도와 사회적 책임’이란 쟁점에 대한 보편적이며 기초적인 합의에 이르게 되었다.

II. 로잔 I 대회 (1974. 6)

150개 국가와 135개 교파의 대표 2,473명과 1,000명의 참관인이 참석함으로써 *Time*지가 ‘기독교 역사 이래, 사도시대 이후 최대의 광범위한 기독교 집회’라고 평한 ‘세계 복음화에 관한 국제대회’는 1974년 6월 16일 스위스 로잔에서 개최되었다. 참석자들은 대회 중에 제기된 여러 토론 주제 중 ‘교회의 사회적 책임’이라는 쟁점에 가장 크게 이끌렸으며, 이 토론은 결국 ‘총회’에서 공개적으로 진행되기에 이르렀고, 그 결과 다음과 같은 조항을 ‘로잔 언약’에 포함하게 되었다.

‘우리는 인간사회 어디서나 정의와 화해를 구현하시고 인간을 모든 종류의 압박에서 해방하려는 하나님의 권능에 참여하여야 한다. …… 우리는 왕왕 전도와 사회참여가 서로 반대되는 것으로 잘못 생각한 데 대하여 참회한다. …… 전도와 사회정치적 참여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의무의 두 가지 부분이라는 것을 인정한다. …… 구원의 메시지는 모든 종류의 소외와 압박과 차별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를 내포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악과 부정이 있는 곳에서는 어디서나 이것을 공박하는 일을 무서워해서는 안 된다. …… 우리가 주장하는 구원은 우리의 개인적, 그리고 사회적 책임을 구체적으로 수행하도록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이어야 한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제5항, 그리스도인의 사회적 책임 중에, 조종남 옮김)

한마디로, 로잔 언약은 ‘교회의 선교’를 ‘복음 전도를 통해 그리스도인들과 교회를 수적으로 증가시키는 것으로 축소하려는 모든 시도’에 치명타를 가한 것이었다. 또한 그동안의 복음주의 진영 안에 명백하게 반영되었던 문화와 사회에 대한 보수적 태도에 대한 회개가 이루어졌다. 한편, 이 정도의 선언에도 비(非)서구 교회의 대표들은 만족할 수 없었다. 소위 ‘급진적인 제자도 그룹’이라는 이름으로 모인 소위 제3세계 지역의 교회 지도자들은 ‘로잔에 대한 반응’이란 문서를 폐회 당일 총회에 제출하였는데 이 문서는 총회 석상에서 즉각 500여 명의 찬성 서명을 받았으며 의장인 존 스토틀의 열렬한 환영을 받아 로잔 언약의 부록으로 채택되었다. 이 문서는 소위 ‘총체적 선교’란 개념을 창출하였으며, 로잔 언약의 성격을 한층 더 강화하려는 의도를 보인 강력한 문서였다.

III. 로잔 I 과 II대회 사이 (1974.4-1989.7)

1) An Evangelism Commitment to Simple lifestyle(1981년)

이후 1979년 10월의 인도 Madras대회와 1980년의 남미 복음화 대회는 이 “총체적 선교개념”을 더욱 지지했으며 그 결과 ‘로잔 위원회 신학 및 교육부’와 ‘WEF 신학위원회 윤리 및 사회분과’는 1981년 ‘An Evangelism Commitment to Simple lifestyle’을 발표하게 되었다. 여기서 이 위원회는 ‘교회가 하나님과 가난한 자들의 편에 설 것을 요청’했으며, ‘정의롭고 책임 있는 사회를 창조하기 위한 투쟁에 적극적인 참여’를 호소하였다.

2) 휘튼 선언(1983년)

이러한 로잔대회 이후의 복음주의 교회의 신학적 동향은 1982년의 그랜드 래피즈 회의를 거쳐, 1983년 휘튼 선언에 이르러서는 거의 모두 정리되고 일치됨으로써, 그간의 긴 신학적 갈등과 논쟁은 종결되었다. 휘튼 선언은 서구사회의 ‘개인주의’와 ‘사유재산권’, ‘무기 경쟁’, ‘국제적 불의’를 지적하며 교회의 예언자적 사명을 다시 강조하였다. 동시에 ‘하나님의 나라는 현재적이며 미래적이고, 사회적이며 개인적이고, 물질적이면서 영적’이라는 총체적 개념을 강조하였다.

그 결과, 르네 빠디아(Rene Padilla)의 말처럼 ‘오늘날 대부분 복음주의자는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만 힘쓰고, 육체적인 필요에는 눈을 감아버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게 되었다. 오히려 오늘날의 복음주의자들은 '인간의 필요에 반응하는 교회'라는 성명서를 휘튼 대회에서 채택하며, '인간의 생활 전체를 하나님의 변혁시키는 권능에 종속되어야 하는 것'으로 간주했으며, '또한 우리는 비록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오직 복음을 선포하기 위해서이요, 정치나 다른 활동에의 참여가 그 목적이 아니라는 사실을 믿을지라도, 우리는 비(非)참여 그 자체가 바로 기존 질서에 대한 암묵적인 지지가 된다는 사실을 받아들인다. 우리는 반드시 악한 사회구조에 도전하거나 아니면 그 구조를 지지하거나 둘 중 하나를 선택하게끔 되어있다.'라고 말함으로써 정치적 참여의 불가피성을 확인했다(1983년 휘튼 선언 1장 3항). 그리고 이러한 신학적 기반에 기초하여 복음주의 교회의 새로운 총체적 선교개념을 창출하였다. 특히 필리핀과 남미 등 비(非)서구 교회의 지도자들이나 비(非)서구 지역에서 활동하던 선교사들(H. Coon, R. Padilla, O. Costas, R. Sider, A. Kirk)은 총체적 선교개념을 가다듬고, 내용을 채우는 일에 전념하였다. 그러한 노력의 결과가 1989년에 치러진 로잔II 대회의 마닐라 선언에 반영되었다.

IV. 로잔II 대회 - 마닐라 선언(1989.7)

1989년 7월에 필리핀 마닐라에 로잔II 대회로 모인 170여 나라 출신의 3,000여 명의 복음주의자들은 마닐라 선언문을 발표하였다. 이 선언문의 서문에는 세계복음주의 협의회가 일련의 신학적 발전을 하게 된 공로가 "지난 15년 동안 복음과 문화, 복음 전도와 사회적 책임, 겸손한 생활양식, 성령, 중생과 같은 주제로 모인 소규모의 신학 협의회"에 있음을 천명하였다.

여기서 우리는 로잔II 대회에서 '총체적 복음'이라는 제목의 선언문이 나오게 만든 15년간의 신학적 주제 중 다수가 사회문화 변혁에 관한 것임을 볼 수 있다. 이 선언문 제1부 21항의 신앙고백 중 9항을 보면, "우리는 정의와 평화의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므로 개인적이든 구조적이든 모든 불의와 억압을 고발하면서 이 예언자적 증거에서 물러서지 않을 것을 고백한다"라고 적혀있다. 또 제2부의 12개 항목의 주제 선언 중 4항 "복음과 사회적 책임"에서는 "하나님 나라에 관한 선포는 그의 나라에 용납될 수 없는 일에 대하여 예언자적인 지적을 하도록 요청한다. 우리가 개탄하는 악은 제도화된 폭력, 정치적 부패, 사람과 땅에 대한 온갖 형태의 착취, 가정파괴, 낙태, 마약 유통, 인권의 유린과 같은 파괴적인 폭력을 의미한다. 참된 선교는 언제나 성육신적이어야 한다. 참된 선교를 위해서는 겸허하게 그 사람들의 세계에 들어가서 그들의 사회적 현실, 비애와 고통, 그리고 압제 세력에 항거하며 정의를 위하여 투쟁하는 그들의 노력에 동참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개인적인 희생 없이는 선교가 이루어질 수 없다"라고 선언했다.

여기서, 우리는 로잔 I 과 II 사이에 비(非)서구 지역의 복음주의 지도자들에 의해 주장되어온 총체적 선교개념이 수용되어 로잔II 대회에서 문서로 만들어진 사실을 볼 수 있다. 로잔 I 대회가 **언약**이라는 형태의 내부적 문서를 채택한 데 비하여 로잔II 대회는 **선언**이라는 더 적극적인 메시지를 세상에 선포하였다.

V. 2010년 제3차 로잔 대회의 ‘케이프타운 서약’에 나타난 총체적 선교

2010년 10월 17일부터 25일까지 남아프리카 공화국 케이프타운에서 제3차 로잔 세계 복음화 대회가 열렸다. 이 대회는 세계 각국의 복음주의 신앙인들의 숫자에 비례하여 대표단을 선발했는데 총 4,000명의 대표단이 선발되었다. 인상적인 것은 100년 전에 열렸던 에든버러 선교대회와 달리 이번 대회에서는 비(非) 서구지역의 대표권과 발언권이 아주 크게 신장하였다는 것이다(특히 중국의 교회는 원래 무려 230명의 대표단을 보내기로 했는데, 중국 공안당국이 공항에서 이들의 출국을 저지함으로써 극소수의 대표들만 참여하는 안타까운 모습도 있었다. 이 일에 대해 로잔 대회의 의장인 더그 버드셀은 “이는 마치 브라질이 빠진 월드컵과 같다”라며 안타까움을 표현하기도 했다.). 대회 전체는 하나님의 큰 은혜 가운데 진행되어 **케이프타운 서약**을 그 열매로 하나님과 온 세계 교회 앞에 드릴 수 있었다.

케이프타운 서약은 특히 ‘회개에 따라오는 **온전함**과 **순종**으로의 부르심’을 강조했다. 왜냐하면 세계 복음화를 위한 하나님의 선교에서 가장 큰 장애물은 박해나 다른 종교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백성들의 불순종이라는 것을 새롭게 깨닫고 반성했기 때문이다. 크리스토퍼 라이트(Christopher Wright)는 기독교 지도자들이 권력과 교만 인기와 성공, 부와 탐욕의 우상에 빠져있다고 지적하였다. 이어 하나님의 선교를 훼방하는 일을 중지하고 겸손하고 온전하고 단순한 삶을 살 것을 요청하였다. 이것이 케이프타운 서약 가운데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주요한 선언이었다. 그중 중요한 몇 가지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케이프타운 서약은 ‘총체적 선교’라는 개념에 근거하여 복음 전도와 사회정의를 강조하는 것을 기존의 입장을 **피조 세계에 관한 그리스도인의 책임**까지로 더욱 확장하여 강조하였다.

“총체적 선교는 복음이 개인들과 사회와 피조 세계에 대해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한 하나님의 기쁜 소식이라는 성경적 진리를 분별하고 선포하며 살아 내는 것을 의미한다. 개인과

사회와 피조 세계 모두는 죄로 인해 깨어지고 고통을 당하고 있다. 이 세 가지 모두는 구속적 사랑과 하나님의 선교에 포함된다. 또한 이들은 하나님의 백성의 포괄적 선교의 일부가 되어야만 한다.” (서약, 7a)

2) 케이프타운 서약은 이 세상의 가난한 자들과 고통받는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강조했다. 동시에 억압받는 자, 국외자, 굶주린 자, 고아와 과부들을 돌볼 것을 강조하고 있으며 또 이 사회의 정치적이거나 법적인 지도자 위치에 있는 자들에게 그러한 책임을 부여하신다고 강조한다.

“하나님의 모든 백성은 -율법과 예언자들, 시편과 지혜서들, 예수님과 바울, 야고보와 요한에 의해- 실천적인 사랑과 가난한 자들을 위한 정의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반영하는 명령을 받았다. 가난한 자들에 대한 이러한 사랑은 우리가 자비와 긍휼의 행위들을 사랑할 뿐 아니라 가난한 자들을 억압하고 착취하는 모든 것들을 드러내고 반대하는 행위를 통해 정의를 행할 것을 요구한다. 우리는 악이 존재하는 곳마다 악과 불의를 고발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아야만 된다. 우리는 이러한 점에서 하나님의 열정을 공유하는 데 실패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구현하는 데 실패하며 하나님의 본성을 반영하는 데 실패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데 실패하고 있음을 부끄러움으로 고백한다. 우리는 소외되고 억압받는 자들을 대신하는 **연대성과 옹호**를 포함하여 정의를 촉진하는 데 우리 자신을 새롭게 받친다. 우리는 성령의 능력과 끊임없는 기도 가운데 십자가와 부활의 승리를 통하여서만 이루어질 수 있는 영적 전쟁의 차원으로서 악에 대항하는 이러한 영적 전투를 인식한다.” (서약, 7c)

3) 케이프타운 서약은 사랑의 계명을 **연합과 연결**하여 세상의 모든 **분열의 장벽을 넘어서는 것**을 강조한다.

“복음의 진리에 대하여 가장 강력하게 확신하는 표지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고질적인 분열의 장벽들-인종과 피부색, 사회계층, 경제적 특권이나 정치적 노선의 장벽들을 넘어서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될 때 나타난다.

우리는 전 세계적인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 안에서 수치스러운 극단적인 물질적 불평등으로 심히 고민하고 있다. 이러한 불평등은 모든 이들을 위한 상호관계와 충족함이 있어야만 된다는 바울의 교훈과 열망을 부정한다. 우리는 때때로 선교를 위한 우리의 열망에 해독을 끼치는 경쟁을 규탄한다.”(서약, 9a)

4) 케이프타운 서약은 **총체적 선교**를 그리스도인의 의무로써 확증하고 강조하였다.

“우리는 복음 전도와 사회정치적 참여 모두가 그리스도인의 의무임을 확증한다. 이 둘은 하나님과 인간에 관한 우리의 교리들, 그리고 우리의 이웃에 대한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순종의 필수적인 표현들이다. …… 우리가 선포하는 구원은 우리의 개인적이고 사회적인 책임이라는 전체성 가운데 우리를 변혁시켜야만 한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통전적 선교(integral mission)는 복음의 선포와 복음의 증명이다. 그것은, 단순히 복음 전도와 사회참여가 서로 나란히 이루어진다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모든 삶의 영역들에서 우리가 사랑하고 회개하라고 사람들에게 요청하는 것처럼, 통전적 선교 안에서 우리의 선포는 사회적 중요성을 갖는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변혁하는 은혜에 대한 증거를 담지하는 것처럼 우리의 사회참여는 복음 전도적인 중요성을 갖는다. 만일 우리가 세상을 무시한다면 세상을 섬기라고 우리를 보내신 하나님의 말씀을 배반하는 것이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다면, 우리는 세상에 가져갈 아무 것도 없게 된다.” (서약, 10c)

케이프타운 서약은 그 전문(Preamble)에서 이미 “우리는 좋건 나쁘건 간에 세계화와 디지털 혁명과 전 세계적으로 변하는 정치 경제적인 힘의 균형에 충격을 느낀다. 전 세계적인 빈곤, 전쟁, 질병, 생태학적 위기, 기후변화와 같이 우리가 직면하는 변화들은 우리에게 슬픔과 불안을 초래한다.”라고 21세기의 선교적 상황을 정돈하였다. 그런데 바로 이 상황 분석이 그 자체로 총체적이며 여기에 관한 그리스도인들의 대답도 또한 총체적으로 정돈되었다. 이런 측면에서 제 3차 로잔 대회 of 선언문인 케이프타운 서약은 더욱 변화하고 있는 오늘날 상황을 잘 인식한 총체적 선교 보고인 동시에 실행을 특별하게 강조한 실천적인 서약이라고 할 수 있다.

VI. 로잔III 대회 이후의 한국교회의 과제

이와 같은 전 세계의 복음주의 교회와 단체들의 동향에 비추어 볼 때, 한국의 복음주의 교회와 기독교 선교 단체들은 WEF의 이러한 흐름과는 동떨어진 구태의연한 모습으로 지난 80년대 이후 급변했던 한국의 정치 사회적 상황을 맞이했으며, 그 결과 한국 사회에 대한 복음주의 교회의 영향력은 지난 30년 동안 현저히 줄어들었다. 이로 말미암아 교회는 사회에 대한 접촉점을 상실했을 뿐만 아니라 복음 전도의 협소화를 초래하게 되었다. 특히 비판적 지식인과 청년들과 학생들이 교회에 실망하여 등을 돌리게 되는 결과를 초래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의 복음주의 교회들과 선교 단체들이 극복해야 할 점들은 무엇일까? 우리 복음주의 선교 단체들은 80년대 전반에 기독교 세계관 확립 운동을 기축으로 한 ‘균형 잡힌 기독교’의 수준에만 머물러서 ‘총체적 기독교’로 나아가지 못한 한계를 안고 있다. 사실 이것은 한국 복음주의 신학계의 한계요, 동시에 전기 개혁주의적 근본주의보다는 후기 세대주의적 근본주의의 경향에 더 뿌리 깊이 서 있는 한국 교계의 폐쇄성, 교조성의 한계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한계를 극복하려면 다음의 두 가지 점을 먼저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첫 번째로 ‘신학적 폐쇄 및 고립화에서 탈피’해야만 한다.

오늘날 한국의 복음주의 교회는 세계복음주의 진영 내에서도 가장 우파적이다. 또한 그동안의 한국의 대다수 교회가 미국의 자본주의적 상업주의 신학의 성격을 띠고 비난받는 교회 성장 신학에만 매달려 물량주의적 교회 성장을 열렬히 추구해 왔었다. 한국의 복음주의적 선교 단체들의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오직 ‘구령 전도’와 ‘기독교인의 개인적인 인격 성숙’만을 목표로 한 미국 중산층 교리의 틀에 맞춘 협소하고 빈약한 복음 전도와 제자도 개념을 근거 삼아 선교활동을 해왔었다.

거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로잔 언약에 참여한 서구와 미국의 신학자들뿐만 아니라 비(非) 서구지역의 신학자들도 포괄하는 전 세계의 복음주의 신학자들과 교회가 애써 확립한 총체적 선교개념에 주의를 기울여야만 한다. 이제는 한국의 복음주의 교회들과 선교 단체들이 편협한 신학적 입장에서 벗어나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성경 신학적 기반 위에 서도록 노력해야 한다. ‘하나님 나라의 제자도’를 주축으로 한 선교 신학과 선교 방법론을 가지고 총체적 선교를 수행해야만 한다. 그럴 때 한국교회는 ‘복음 전도’와 ‘사회적 책임’을 이원화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총과 정의’를 함께 선포할 수 있을 것이다.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신학의 자주화’이다. 물론, 이것은 계시적 보편성과 교리적 전통을 바탕으로 하여야만 한다. 그러나 과거 복음주의 교회와 선교 단체가 교육하는 내용은 한국의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못했었다.

왜 그토록 아름다운 신앙적이고 교리적인 전통에 서 있으면서도 그 보편성에 기초하여 한국교회가 당면한 문제들 - 예를 들면, 극단적인 이념 분쟁의 문제, 남북통일 문제, 전통문화와 세속문화에 관한 입장, 사회정의 실현에 대한 문제, 노동에 관한 문제, 경제적 불평등 구조에 관한 문제, 외국인 노동자의 인권에 관한 문제, 탈북자들의 남한사회 정착에 관한 문제 등등 -에 대하여 신학화 작업을 하지 못하고 있으며, 오로지 서구적 개인주의에 기초한 관념적 명제들에만

매달리는 결과만을 양산해 내고 말았는가?

한마디로, 한국의 신학이 서구의 신학에 뿌리 깊게 종속화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미 살펴보아 알겠지만, 그동안 세계의 복음주의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커다란 변화의 가장 중요한 추동 세력은 예전에 제3세계라고 불렸던 비(非) 서구지역에 속한 주체성 있는 신학자들이며 그들의 단합된 목소리가 변화를 만들어 내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저들은 각기 자기 모국의 교회가 부딪친 문제를 신학화 하면서, 세계복음주의 협의회가 이에 관심을 기울일 것을 요청한다. 이러한 요청에 답변하는 가운데 세계 신학은 서구 일변도의 신학적 주제들을 벗어나면서, 새로운 교회의 현실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이게 되며, 또 그에 따른 새로운 변화가 일어남에 따라 세계 신학은 그 다양성과 생명력을 유지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건전한 신학과 교리적 기초에 서 있되 창조적인 신학 작업을 주체적으로 수행하는 교회 지도자들과 선교지도자들이 많이 나와야만 한국 복음주의 교회와 선교 단체들은 이 시대적 난관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다시 한번 세계복음주의 교회의 흐름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는 것으로 이 글을 마치고자 한다. 제1차 세계복음주의 로잔 대회(1974년 스위스 로잔)에서 그 유명한 **로잔 언약**(The Lausanne Covenant)이 체결되었다. 제2차 마닐라 대회(1989년 필리핀 마닐라)에서는 **마닐라 선언**(The Manila Manifesto)이 채택되었다. 제3차 케이프타운 대회에서는 **케이프타운 서약**을 결과물로 만들어 냈다.

이처럼 **언약**(Covenant), **선언**(Manifesto), **서약**(Commitment)으로 표현되는 세계 복음화를 위한 귀중한 문건들이 우리 세대 복음주의의 총체적 신앙고백으로 남게 되었다.

이 유산을 지금(Now), 이곳에서(Here) 적용하고 실현하는 것이 오늘날 우리 한국의 복음주의 교회들과 선교 단체의 시대적이고 선교적인 과제일 것이다.

나의 사역과 로잔 언약

이문식 목사

1980년대는 나의 청년기 후반의 배경이 되는 역사적 무대이다. 54년생인 나는 27살 되던 해에 광주민주화운동이라는 역사적 현실에 직면하게 되었다. 당시 나는 신학생이었다. 25세 전반까지만 해도 니체, 도스토옙스키, 키르케고르의 책을 끼고 지독한 실존적 문제로 하나님과 내면의 씨름을 하고 있던 나는 27세를 기점으로 역사적 문제에 대한 신앙적, 신학적 고뇌를 하기 시작했다. 보수적인 교단에 속한 신학교에서 칼빈주의 개혁 사상과 하나님 나라에 관한 성경 신학적 통찰을 통합해 나가고 있던 나는 갑자기 어느 날부터 한반도와 남미 등 비(非)서구 세계의 현실 속에서 촉발된 사회정치적 이슈에 대한 역사적 성찰에 깊은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했다. 20대 후반에 시작한 대학원에서의 선교학 석사 과정 중 해방신학과 민중신학의 성서 해석학에 깊은 흥미를 느끼게 되었고, 그 후 김세운 박사가 지도하는 신약학 석사 과정에서는 총체적 성서 연구에 전념하게 되었다. 철학과 역사학, 사회학을 통합한 해석학적 전제를 바탕으로 성경의 컨텍스트를 통합적으로 연구하고 이를 구속사적 성서해석과 통합하는 이른바 내 나름의 총체적 성경 신학을 수립하는 일에 나의 젊은 날은 고뇌와 열정으로 들떠있었다.

1. 로잔 언약과의 만남

이때부터 나는 '행동하는 신학(Doing Theology)'에 매료되었고 이것을 나의 평생의 목회 철학으로 받아들였다. 모든 신학적 이슈는 먼저 인간의 현실(Context)에서 출발해야 하고 이 질문을 하나님과 성경으로부터 응답받아 실천해야 한다는 확신이 내면화되었다. 이 과정을 거쳐 나의 신앙은 관념의 장벽을 벗어나 현실의 바닥으로 출애굽할 수 있었고 나의 신학은 나의 삶의 한복판에서 익어가기 시작했다. 해방신학과 민중신학의 성경 해석학이 지나치게 사회학적 성서 해석으로 귀결되는 것을 피하려고 비(非)서구 세계에 속한 복음주의 신학자들의 책을 읽기 시작했다. 이때 만난 사람들이 사무엘 에스코바(Samuel Escobar), 올란도 코스타스(Orlando E. Costas), 르네 빠디아(Rene Padilla) 등의 이른바 로잔 운동의 급진적 제자도 그룹에 속한 학자들이었다. 웨스트민스트신학교의 하비 콘(Harvie M.conn)이나 로저 그린웨이(Roger S. Greenway) 같은 선교 신학자들의 글도 이때 만났다. 물론 존 스토틀(John Stott)와 자크 엘룰

(Jacques Ellul)의 책들은 나에게 가장 기본적인 교과서 역할을 하였다. 이때부터 나는 로잔 신학과 점점 더 자주 그리고 깊이 만나게 되었고 이후 로잔 운동이 나의 목회와 선교 실천 속으로 깊이 스며들기 시작했다.

2. 구로희년교회

1989년 당시 35세로 강도사 시절에 나는 구로동에서 첫 교회를 개척하였다. '구로희년교회'라는 간판을 걸고 시작한 이 교회는 당시 동아시아 산업사회의 모든 모순이 깊이 스며든 구로공단에서 하나님 나라의 희년을 선포하고 살아 내려는 한 젊은 목회자의 꿈과 열정이 빚어낸 첫 공동체였다. 이미 교회 개척 전에 후배 청년들과 함께 야학과 노동자 탁아소를 가리봉동에 세우고 당시 공장 활동을 하던 대학생들과 함께 부분적 참여를 하고 있던 나는 35세 때에 독일 유학 대신에 구로공단으로 삶의 방향 전환을 시도했다. 이 방향 전환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감동으로 이루어졌다. 독일 유학을 준비하고 있던 나는 어느 날 서울 외곽의 한 변두리 교회 수요 집회에서 한 여자 선교사의 선교 헌신 간증을 듣던 중 깊은 감동과 함께 나의 삶의 방향에 대해서 드디어 결단을 내릴 수 있었다. 그전까지 군부독재와 수탈적 경제 구조의 어둠 속에서 고통받고 있는 젊은이들을 향하여 소위 시혜적 참여를 하며 당시 사회 선교 운동의 주변부를 맴돌고 있던 나는 좀 더 중심부로 한 발짝 내딛기로 결심한 것이다. 그 수요일 저녁 나는 독일 유학을 준비하고 있는 내 모습이 마치 다시스로 가려고 하는 요나와 같다고 느꼈다. 그날 저녁 나는 다시스가 아니라 니느웨로 삶의 방향을 바꾸게 되었다. 구로공단은 당시의 나에게겐 군사적 억압과 수탈이 깊이 드리워진 니느웨였고, 갈릴리 북부 납달리와 스블론 같은 어두움이 깃든 땅이었다. 깊은 신앙적 감화와 감동 가운데에서 나는 구로공단 가리봉동 지역으로 집을 옮겼고, 당시 칠십 노모와 초등학교 2학년이었던 아들과 아내와 함께 교회를 개척하기 시작했다. 당시 봉제공장이 있던 4층 20평을 월세로 얻어 이만열 교수님이 써준 구로희년교회라는 간판을 걸고 시작한 이 공동체가 바로 오늘의 희년선교회의 기초공동체가 되었다.

3. 희년선교회 및 희년의료공제회

희년선교회는 로잔 정신을 가지고 대도시 선교(Urban Mission)를 실천하는 공동체이다. 그 주요 대상은 한국산업공단에 이주 노동자로 들어온 비(非)서구권 출신의 사람들이다. 당시 세계는 이미 자본 시장만 개방된 것이 아니라 노동시장도 국제화되었다. 신자유주의 체제에서 노동자들은 국경을 넘어서서 일자리를 찾아 타국으로 이주하기 시작했다. 유럽에서는 주로 터키 노동자들과 서북 아프리카 노동자들이 EU 노동시장으로 흘러들어왔고, 아시아에서는 동남아시아 노동자들이 홍콩, 싱가포르, 일본, 한국 등으로 이주하여 불법체류 노동자로 주저앉았다. 불법체류 노동자는 출입국관리법상의 불법을 저질렀을 뿐이다. 그 나머지 부분에서는 우리나라도 ILO에 가

입되어있는 국가이기 때문에 정부가 이들의 인권이나 노동삼권을 마땅히 보장해야만 한다. 그런데도 이들은 불법체류라고 하는 신분적 약점 때문에 대부분 심각한 인권침해를 당하고 있었다. 희년선교회는 이러한 불법체류 외국인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그 인권을 보호하고 노동환경을 개선하며, 성경의 가르침에 따라 나그네를 환대함으로 복음을 선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하였다. 처음부터 로잔의 총체적 복음, 총체적 선교의 개념을 가지고 사역하였으며, 복음 전도와 사회정의를 총체적으로 구현하는 선교전략을 실행하였다. 특히 이들이 의료보험 혜택을 받지 못한 의료 사각지대에 방치된 것을 보고 그 대안으로 사설 의료보험 조합(‘희년의료공제회’)을 설립하여 기독교적 인도주의를 실천하였다.

희년의료공제회에는 2023년 6월 기준 74개 국가에서 온 누적 회원 19,636명의 회원으로 구성된 국제적 의료 보험 조합이다. 현재까지 16,311명에게 36억 8천여만 원의 의료비를 지원하였고, 또 매주 무료 진료소의 내과 포함 10개 진료과를 통해 1차 진료를 하고 이 중 계속 치료가 필요한 사람들을 조합에 속한 협력병원(아산병원을 포함한 543개의 병원)에 보내어 계속 돌보고 있다. 50여 명의 의료진과 150명의 의·약학대, 간호대, 치대, 한의대 학생들이 봉사하는 무료 진료소를 통해서 지금까지 45,600명이 진료받았고, 4,600명이 건강검진을 받았다. 이 과정을 통하여 자발적으로 기독교 공동체가 각 민족 별로 세워졌는데 현재 총 7개의 민족 공동체(Ethnic Community, 필리핀, 네팔, 캄보디아, 베트남, 방글라데시, CIS(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 러시아, 고려인), 쿠르드(이란, 이라크, 터키))가 매주 예배와 성경 공부, 식탁공동체로 모이고 있다. 이 희년선교회를 통해서 느낀 보람과 감동은 큰 수술을 받고 고국으로 귀환한 한 외국인 노동자 형제가 쓴 편지 중의 한 구절이 대변한다.

“목사님! 한국에 돈 벌려고 왔지만 돈 보다 더 큰 것, 예수님을 얻고 갑니다. 감사합니다.”

이 사역을 생각하면 지난 30년 동안 이 일을 이끌어 주시고 돌보아 주신 하나님께 깊은 감사를 드릴 수밖에 없다.

4. 산울교회

이후 1997년, 산본 지역에 두 번째 교회를 개척하였다. 두 번째 교회 개척의 목회 철학은 ‘샬롬 목회(Shalom Ministry)’라고 할 수 있다. 희년선교회의 사역과 3년 반 동안의 남북나눔운동에서 겪은 NGO 체험을 통해 기독교 신앙이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가치는 바로 ‘샬롬’이라고 생각했다.

로잔의 신학이 ‘균형 잡힌 기독교(The Balanced Christianity)’에서 ‘총체적 기독교(The

Wholistic Christianity)로 발전한 것처럼 나의 목회 철학도 점차 총체적 목회(The Wholistic Ministry)로 성숙하였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 하나님 나라의 교회, 하나님 나라의 선교개념이 통합된 목회를 지향하게 되었다. 특히 하나님 나라(다스림)의 결과는 'shalom'이다. 따라서 하나님의 다스림이 임하는 교회 공동체의 본질은 'shalom 공동체(The Shalom Community)'이다. 온 세상이 이기심과 이념과 인종과 종파와 문화적 갈등을 극복하지 못하고 분쟁과 테러와 전쟁으로 가득 차 있다. 이런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교회는 '대안적 공동체(The Alternative Community)'가 되어야 한다. 하나님의 대안은 한마디로 'shalom'이다.

그래서 산울교회는 지역사회에서의 'shalom'을 추구하는 것을 지역선교의 첫 번째 전략으로 삼았다. 당시 군포시에는 여러 시민운동 단체들이 있었다. 군포지역에 이사 가서 제일 먼저 군포경실련을 창립하는 일에 참여하였고, 나중에 공동대표까지 맡게 되었다. 지역시민단체 운동가들과 교제하면서 산울교회가 어떻게 지역시민단체를 지원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게 되었다. 그 일의 하나로 교회 교육관을 개방하고 지역시민단체들이 마음껏 자유롭게 교육 토론 공간으로 사용하도록 제공하였다. 또 지하 식당을 열어서 지역 사람들이 저렴한 가격으로 매일 점심 식사를 해결하도록 하였고 그 이익을 지역사회의 가난한 사람들에게 환원하는 소위 사회적 기업을 시작하였다. 이 두 사업이 시너지 효과를 갖고 와 산울교회는 지역 주민에게 개방된 공동체, 지역사회의 모든 현안에 열린 공동체, 지역 시민사회와 깊은 연대성을 확보한 공동체로 각인되었다. 지역의 시민사회는 대부분 시민교육강좌와 세미나를 산울교회 교육관에서 진행하였고 세미나 중에 식사 문제도 교회 식당에서 해결함으로써 점차 산울교회는 지역사회의 중심에 자리를 잡게 되었다.

그중에서도 여성민우회와의 관계가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져 선교적 협업을 하게 되었다. 특히 사별이나 이혼으로 인한 한부모가정을 지원하는 일에 집중하였다. 교회가 로잔 언약에 기초한 총체적 선교개념을 가지고 이미 사회선교위원회를 구성하여 활동하였는데 그 연장선상에서 사회선교사를 파송하게 되었다. 우리 교회에서 파송한 사회선교사는 군포여성민우회와 협력하여 한부모 가정에게 집을 제공하고 공동체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그룹 홈 사업'을 전개하였고 그 결과 10여 한부모가정에게 주택을 제공하고 생활 대책을 공동 모색하는 놀라운 성과를 이루었다. 이 모델을 바탕으로 하여 한부모가정을 돕는 지역 NGO를 구성하게 되었고, 고아와 과부를 돌보라는 성경의 명령을 좀 더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데에 교회가 그 밑거름이 되었다. 이런 과정을 거쳐서 산울교회의 권사들이 군포여성민우회의 대표가 되기도 하는 등, 산울교회 여성도들은 자연스럽게 지역사회에서의 여성 지도자로 건강한 영향력을 나타내게 되었다.

대안공동체로서의 산울교회는 단순히 지역사회에서의 'shalom'만을 추구한 것이 아니라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도 헌신하는 공동체로 성장하였다. 남북분단과 동서 분열, 극단적인 이념대립으로 사회적 갈등과 증오가 증폭되는 남한사회에서 교회는 평화의 영성으로 모든 갈라지고 분열된

것을 통합하고 치유하는 ‘대안 사회’여야만 한다. 그래서 산울교회는 창립 이후 매년 6월을 ‘민족 화해의 달’로 선포하고 북한 어린이들을 위한 인도주의적 지원을 위해서 특별헌금을 할 뿐만 아니라 21일 동안 온 교인이 릴레이 금식기도(다니엘 세이레 기도)를 하며 민족의 화해와 통일을 위해서 평화의 영성을 함양하였다. 이 과정을 통하여 산울교회는 연평도 포격 사건이나 천안함 침몰 사건 같은 극단적인 남북의 군사적 대립 상황 속에서도 원수 사랑의 아가페 영성을 가지고 한결같이 금식 기도하며 북한에 대한 인도주의적 지원을 중단하지 않고 계속 시행하는 성숙한 평화공동체의 모습을 드러냈다. 이러한 ‘살롬 목회’의 모든 정신과 신학은 그 뿌리가 로잔 운동에 있다. 74년 로잔 언약, 89년 마닐라 선언, 2010년 케이프타운 서약으로 이어진 로잔 운동은 나의 목회에 풍부한 신학적 자양분을 제공하였다.

대안공동체로서의 교회는 기존 교회에 대해서 또 다른 대안교회를 지향하게 된다. 건강한 교회는 신앙의 질적 성숙과 함께 양적인 성장도 자연스럽게 동반한다. 건강한 교회 성장은 그런 측면에 인위적인 성장 촉진을 강조하거나 성장주의를 지향하지 않는 한 긍정적으로 보아야 한다. 그러나 아무리 건강한 교회 성장이라 해도 대형교회로의 성장은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킨다. 숫자 성장에 따라 요구되는 교회 공간의 확장과 주차장의 확보가 무리한 헌금 강요와 재정부실을 일으키고 교회 지도자들의 관심이 교회의 자산 확보에 우선순위를 두게 되는 현상은 대형교회로의 성장 과정에서 자주 발견되는 문제점이다. 구로회년교회를 통하여 도시 빈민목회와 외국인 노동자 선교를 경험하고 난 후 군포시에서 두 번째 교회 개척을 통해서 중산층 주거지역에서의 대안교회의 모델을 모색하였고 그 결과 ‘교회를 분립하는 교회’를 세우기로 결심하였다. 그래서 산울교회에서의 목회 철학을 드러내는 구호로 ‘한 그루 나무보다 숲을 이루는 목회’를 내세웠다. 따라서 산울교회는 맨 처음부터 전 교인이 교회 개척헌금을 월정헌금으로 작성하게 하고 이것을 기금으로 하여 모두 3개의 교회를 분립 개척하였다.

분립교회를 세울 때마다 약 2억 원 정도의 개척기금을 지원하였고, 자원하는 교인들을 적극적으로 파송하였다. 그 결과 대부분 교회가 초기 미자립 과정을 비교적 수월하게 극복하고 자립하기 시작했다. 또 교회 위치도 비교적 모(母) 교회에 가까이 있도록 함으로써 한 지역사회에 건강한 교회들이 서로 동역할 수 있기를 꿈꾸었다.

5. 광교산울교회

그 후 네 번째 분립개척은 담임목사인 나 자신이 직접 하기로 결심하고 17년간 목회했던 산울교회를 2013년 사임하였다. 수원시 광교신도시 지역에서 광교산울교회를 개척하였고, 이후 광교산 자락으로 교회의 장소를 옮기 되었는데, 내가 그 동안 교회 분립개척에 나름 힘쓴 이유는 로잔 정신에서 나타난 선교적 교회에 관한 개념 때문이었다. 로잔 언약은 지상 명령(The

Great Commision)의 성취와 지상 계명(The Great Commandment)의 수행을 총체적으로 수행하는 복음주의 선교 신학을 천명하였는데 이를 지역 목회에서 가장 효과적으로 드러내는 방법이 대교회 중심적 교회 성장 전략보다 교회 분립을 통한 지역 공동체적 선교전략이다. 지역사회의 필요와 문제점에 민감하게 반응하면서도 하나님 나라 공동체의 구별됨을 드러내는 교회 개척 전략이 현재도 수원시의 광고 지역에서 수행되고 있다. 광고산울교회는 지난 10년의 세월을 거치면서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평화를 이루는 ‘평화 공동체(Shalom Community)’, 다음 세대를 세우는 ‘다음 공동체(Next Community)’, 연약한 이들을 돌보는 ‘아래로 공동체(Downward Community)’, 창조 세계의 보존과 회복에 힘쓰는 ‘에코 공동체(ECO Community)’를 지향하며 건강한 교회로 성장하고 있다.

한국에 선교사로 와서 동두천지역에서 미군 위안부들을 대상으로 사역하다가 미국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의 조직신학 교수로 부름을 받아 귀국하게 되었던 하비 콘(Harvie M. Conn)은 총신대학교에서 행한 고별설교에서 다음과 같은 간증을 하였다.

“나는 지난 2년 동안 미국이 한국에서 지은 여러 가지 죄에 대해 속죄하는 차원에서 동두천에서 미국 위안부들을 대상으로 전도하였다. 그러나 지난 2년 동안 단 한 사람도 회개하지 않았다. 이제 딱 한 사람 나 자신이 회개하며 떠난다. 복음 전도만으로는 그들의 삶을 바꿀 수 없다. 복음 전도와 함께 그들의 삶을 갱생시키는 사회적 회복프로그램이 없이는 아무도 회심하지 않는다.”

당시 신학대학 3학년생이었던 나는 이 고별설교를 통하여 선교의 총체성에 대하여 처음으로 문제의식을 품게 되었다. 이 문제의식은 그 후 로잔 운동을 통하여 재확인되었다. 그리고 지금도 나의 목회와 선교를 통해서 이 문제의식은 현재 진행형으로 이어지고 있다.